

불굴의 영혼

William Ernest Henley

나를 덮고 있는 밤
온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밤에,
나는 신들에게 감사한다
무너뜨릴 수 없는 영혼을 주신 데 대해.

포악한 환경의 마수에 붙들려도
나는 움찔하거나 소리 내어 울지 않았다.
몽둥이로 내려치는 위협 속에서도
내 머리는 피투성이가 될지언정 굽히지 않는다.

이 분노와 눈물의 땅 너머로는
어둠의 공포만이 보이지만,
오랜 세월의 위협에도
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.

문이 아무리 좁더라도,
그 길이 형벌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상관없다.
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고
내가 내 영혼의 선장이다.